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과와 시사점

김경민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kkmkim@kiep.go.kr, 044-414-1507)

정동연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차 례

1. 배경
2. 주요 성과
3. 시사점

주요 내용

- ▶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6년 9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함.
 - 중앙아는 한국의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과 유라시아 시장·물류 경로 다변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은 중앙아의 산업 고도화와 대외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상호간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
 - 개별국과의 협력을 넘어 지역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의제가 확대되고 주요국도 중앙아 5개국과 정상급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장관급 한·중앙아 다자협력체계를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할 필요성이 커짐.
- ▶ 제1차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앙아 협력을 정상급으로 제도화하고,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중앙아의 자원 고부가가치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공통 협력 방향을 설정함.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기존 외교장관급 다자협력 채널인 한·중앙아 협력포럼과 외교차관급 고위관리회의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서울선언」에는 유라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핵심광물·교통·물류 협력, AI·과학기술 및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신규 다자 이니셔티브 마련, 인적 교류 확대 등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방향이 제시됨.
- ▶ 「서울선언」에 제시된 공동의 중장기 협력의제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로 발전시킴.
 - 카자흐스탄과는 자원·에너지 공급망 및 첨단산업, 우즈베키스탄과는 핵심광물·제조업 고도화·교통인프라,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플랜트 및 제조·인프라 현대화 협력에 중점을 둬.
 - 키르기스스탄과는 시장 접근 여건 개선과 축산·전력 분야, 타지키스탄과는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구체화함.
-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2년 주기의 정상급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후속 협의와 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정례적인 정상급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자 차원에서는 지역 공통의 협력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 차원에서는 국가별 여건과 수요에 따른 세부 협력을 논의함.
 - 이번 정상외교에서 논의된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중앙아의 자원 고부가가치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자원 조달 방안을 함께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임.

1. 배경

■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6년 9월 16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함.

- 9월 14일 한-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15일 한-투르크메니스탄, 한-카자흐스탄, 16일 한-타지키스탄, 한-키르기스스탄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함.
- 9월 15일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16일 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등 정상외교와 연계한 경제·비즈니스 행사도 이어짐.

■ 한국의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유라시아 시장 확대 필요와 중앙아의 성장 및 대외협력 파트너 다변화 수요가 맞물리며 한국과 중앙아 간 상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

- 한국의 핵심과제인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연결성 확대를 위한 파트너로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요충지인 중앙아와의 협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제약되는 가운데, 중앙아와의 협력은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성과 시장 접근성을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2025년 한·중앙아 5개국 간 교역액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¹⁾
- 중앙아는 역외 파트너 다변화(다중벡터 외교)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한 산업 고도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경제안보·연결성 등 중앙아 지역에 공통된 협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 양자협력을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상급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커짐.

-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무역·투자, 교통·물류 등은 중앙아 5개국과 공통의 협력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분야로,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연결성과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과 중앙아 간의 다자협력 기반은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출범을 시작으로 발전해왔으며, 협력의 추진력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조정을 위해 기존 장관급 협력체계를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할 필요성이 커짐.
- 주요국(중국, 러시아, 미국, EU, 일본 등)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 5개국과 정상급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 및 제도화하여 정상급 다자협력을 정례화하는 추세임.²⁾

■ 본고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양자 정상회담의 성과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한-중앙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한국무역협회 K-Stat, 국가 수출입(검색일: 2026. 9. 21.).

2) 김정민(2026. 3. 24.), 「최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 주요 성과

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³⁾

■ [정상급 다자협력 제도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존 다자협력 채널과 연계하여 정상급·장관급·차관급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개최국은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르기로 함.
 - 제2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 예정임.
- 정상회의 미개최 연도에는 기존 외교장관급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직전 정상회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의제를 마련하며, 외교차관급 고위관리회의는 정상회의 실무 준비를 담당함.
 -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2007년 외교차관급으로 출범한 후 2017년 사무국 설치 후 2020년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되며 발전해옴.⁴⁾
- 또한 국회의장 회의, 싱크탱크 포럼, 지방협력 포럼 등 기존 한·중앙아 다자협력 채널을 병행하여 활용할 예정임.

■ [무역·투자 및 산업협력 여건 개선] 한·중앙아는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기업 진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무역·투자와 산업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제1차 한·중앙아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앙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여 산업협력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함.⁵⁾
-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중앙아 정부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창구(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며, 의료제품 및 화장품 등 제조업 분야 규제 협력과 지식재산 관련 협력도 진행할 예정임.
 - 지식재산처는 정상회의 기간 중 각각 중앙아 5개국과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과 교환하고,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 체결함.⁶⁾
-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생산시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고, 농축수산업 관련 종자, 저장, 기계화, 가공 및 스마트 양식 분야 기술협력도 추진하기로 함.

3) 아래 정상회의 성과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참고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 관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4가지 중점 주제 설정[전문]」(2026. 9. 16.), 『조세일보』.

4)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사무국 소개 연혁(검색일: 2026. 9. 19.).

5)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 9. 17.),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6)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 9. 16.), 「지식재산처, 한·중앙아 ‘지식재산-실크로드’ 협력망 구축」.

- 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은 교역·투자, 핵심광물·첨단제조, 인프라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중앙아 5개국은 자국의 산업·개발 수요에 맞는 투자·협력 분야를 제시함(자세한 사항은 글상자 1 참고).

글상자 1. 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각국 정상 주요 발언

- 한국은 교역품목 다변화 및 투자 확대,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연계한 가치사슬 구축, 도시개발·고속철도·플랜트·전력망 인프라 협력 확대를 강조함.
- 카자흐스탄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현지 생산 확대와 핵심광물 전 주기 협력,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카자흐스탄의 ‘알렌.ai’를 거점으로 한-중앙아 첨단기술 센터 설립과 공동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함.
- 키르기스스탄은 수력발전소 건설·현대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주변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조성, 관광 인프라 투자 및 인력 양성 협력을 제안함.
-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을 포함한 녹색에너지, 핵심광물, 농산물 가공·수출 물류센터, 전 주기 섬유산업단지, 국제운송회랑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철도, 관광 인프라, 마이크로 파이낸스, AI·디지털 전환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과 교통·물류망 구축을 강조함.
- 우즈베키스탄은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한국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허브 투자,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신소재, R&D, 바이오·제약 클러스터(연구, 임상, 생산 등) 분야의 협력을 제안함.

자료: 「9/16(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특별세션 기조연설」(2026. 9.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Служба централь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2026. 9. 16.),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ступил на бизнес-саммит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26. 9. 16.), “Президент Садыр Жапаро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бизнес-саммите в Сеуле”; Ховар(2026. 9. 16.),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Эмомали Рахмона на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уркменистан Золотой век(2026. 9. 16.),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Туркменистана Сердара Бердымухамедова на первом Бизнес-саммит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26. 9. 16.), “Президент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первого бизнес-саммит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Корея».”

■ [경제안보·유라시아 연결성 제고] 중앙아의 자원·지리적 이점과 한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은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유라시아 연결성을 강화하고 중앙아는 자원 고부가가치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한·중앙아는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수력·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인프라 현대화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함.
 - 한국정부는 미·이란 전쟁 이후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자 2026년 4월 대통령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하여, 카자흐스탄산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함.⁷⁾
- 한·중앙아는 중앙아의 핵심광물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연계해 가공, 산업 현지화, 과학·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교류를 포함한 공동 부가가치 생산망 구축 방향을 제시함.
 -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중앙아의 핵심광물, AI 및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ADB 협력 방안을 논의함.⁸⁾

7) 「비상경제 대응 및 전략경제협력 특사 방문 성과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2026. 5.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4.), 「이재명 대통령, 칸다 마사토 ADB 총재 접견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중앙아는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교통 인프라 수요가 높은 만큼 한국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현대화·운영·관리 참여를 지원하고, 항공 연결성을 확대하여 인적·물적 이동 기반 확대를 모색함.
- 또한 내륙항·세관 인프라 등 물류허브 개발과 디지털 무역 원활화를 통해 중앙아의 물류 효율성과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함.

■ [미래협력 기반 확대] AI·과학기술, 기후·환경 분야의 다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를 늘려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함.

- 한·중앙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앙아 미래 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채택해 AI·과학기술 분야 협력 원칙과 정책·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함.⁹⁾
- 「한·중앙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기반을 마련함.¹⁰⁾
 - 산림청은 중앙아 5개국과 각각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중앙아 5개국에서 미래 혁신기술을 활용한 기후 기술의 현지 실증과 사업화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전략 기획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¹¹⁾
- 고려인 공동체를 통해 한·중앙아 간 역사적·인적 유대를 확대하고, 유학생·산업인력·공무원 교류를 늘려 한·중앙아 간 인적 기반을 넓히려 함.
 - 중앙아 내 고려인 공동체는 한·중앙아 간 고유한 역사적·인적 연결고리로, 2027년 중앙아 정착 9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 9. 14.),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 회의 개최」.

1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 9. 16.), 「기후·에너지·환경 협력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책구상 발족」.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 9. 14.),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장관 회의 개최」.

표 1.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서울선언」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한·중앙아 다자협력 제도화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년 주기로 정례적 개최, 차기 개최국은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문 알파벳 순 * 제2차 정상회의는 합의에 따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2028년 개최 예정 - [(외교)장관급 한·중앙아 협력 포럼]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과 점검 및 차기 의제 마련을 위해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개최 - [(외교)차관급 고위관리회의(SOM)]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담당 - 이외 국회의원회 의회, 싱크탱크 포럼, 지방정부 협력 포럼 등 개최
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 재확인 및 남북대화 재개 등 한국정부의 노력 지지 -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의 국제 핵 비확산 및 역내 안보 기여 평가 - 테러리즘, 마약 밀매, 사이버 위협, 초국가적 범죄, 불법 이주 등 주요 도전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무역·투자 및 공급망 안보 협력	- [무역·투자] 한·중앙아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협의 추진, 중앙아 정부 내 한국기업 지원 전담창구(코리아 데스크) 설치 - [규제] 의료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 규제 조화 촉진 - [건설]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 개발, 생산시설, 인프라 건설 협력 - [교통] 한·중앙아 연결성 강화, 한국기업의 중앙아 교통 인프라 건설·현대화와 운영·관리 참여 지원 - [농업·축산·수산] 종자·저장·기계화·가공 및 스마트 양식 분야 기술 협력 모색 - [핵심광물] 중앙아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가공, 산업 현지화,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협력 - [에너지] 원유·가스와 석유화학 협력 강조, 천연가스 고도 처리 및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공동사업 가능성 모색, 수력·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협력 모색 - [연결성] 내륙항(dry port), 세관 인프라 등 물류허브 개발, 다양한 항공편 운항 활성화 등 항공 연결성 강화
기술·혁신 및 기후 협력	- [중소기업] 중앙아의 스타트업에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 경험 공유 - [디지털 전환] 중앙아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 [과학기술] 「한·중앙아 AI·과학기술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 채택과 이행 노력 추진 - [지식재산] 지식재산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의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보건]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협력 모색 - [기후변화] 「한·중앙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이니셔티브」 채택, 디지털 산림 복원 및 기후대응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수자원] 물 절약 기술 분야 협력 확대
교육·문화·인적 교류 협력	- [고려인] 한·중앙아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가교 역할 강조, 돌봄 지원과 사적지 기념사업 추진 - [교육] 공동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정부 초청 장학사업, 학생 교류 및 상호 언어교육, 대학 간 협력 강조 - [문화] 청년 간 교류 확대, 문화유산 및 유적의 보존·연구·등재 및 관리 관련 기술·정책 협력 - [산업인력] 직업교육·숙련기술 훈련 협력 지속, 지역 수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공무원 교류] 공공행정, 디지털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 역량 강화 협력

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서울선언」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자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4가지 중점 주제 설정[전문]」(2026. 9. 16.), 『조세일보』.

나. 한-중앙아시아 양자 정상회담

■ 우리 정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양자협력과 C5+1 협력을 병행하여 각국 수요에 맞는 실질 협력을 심화”한다는 방향 아래 양자 차원에서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가별 경제·산업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협력 의제와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74건의 협정·MOU 등 정부·기관 간 협력 문건이 체결됨.¹²⁾
- 특히 카자흐스탄과는 2009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타지키스탄과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함.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은 9월 15일 각각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총 97건의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됨.¹³⁾

■ [협력의제 구체화] 양측은 「서울선언」에서 제시된 공동의 중장기 협력의제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별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과제로 발전시켰으며, 일부 의제는 비즈니스 행사와 연계하여 기업·기관 간 협력 및 투자·사업화 단계로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둠.¹⁴⁾

- [카자흐스탄] 풍부한 자원·에너지 기반과 산업·도시 인프라 고도화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과학기술, 도시 개발·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업 간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계함.¹⁵⁾
 - [희소금속 산업협력]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설립 추진 재확인 및 카자흐스탄의 자원·생산 기반과 한국 기업의 기술·투자 역량을 연계한 단계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모델 발굴
 - [원유·원자력 협력] 유전 개발·석유화학 등 원유 밸류체인 전반의 협력 확대 및 원자력 분야 MOU를 통한 원전 전 주기 협력 기반 구축
 - [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레임워크] KAIST 모델의 Kaz-AIST 설립·운영을 지원
 -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시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지 기업과 알라타우 스마트시티의 미래모빌리티·에너지·디지털 분야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범위와 참여 방안 구체화 계획¹⁶⁾
 - [에너지 인프라] 현대엔지니어링-카자가스(QazaqGaz) 간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사업 이행 합의서 체결 및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 추진, 삼성E&A-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간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약 체결¹⁷⁾

12)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4~16.), 한국-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개별 브리핑 종합.

13)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 9. 17.),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14) 아래의 양자 협력 합의 및 세부 내용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합의문(서울선언),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양자 정상회담 결과, 한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간 양자 비즈니스 포럼 결과,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함.

15)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5.),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16) 현대차그룹 보도자료(2026. 9. 17.), 「현대자동차그룹, 카자흐스탄 기업과 알라타우 시티 사업 추진 협약 체결」.

17) 현대차그룹 보도자료(2026. 9. 16.),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국영가스공사와 『카라차가낙 가스처리시설』 사업이행합의서 체결」.

-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고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수요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공급망과 제조 AI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고속철 협력을 확대함.¹⁸⁾
 - [핵심광물 지질탐사 협력]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탐사·평가 및 활용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향후 한국기업이 투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¹⁹⁾
 - [제조 AI 전환 협력] 제조 AI 관련 기술협력·지식 공유·인적역량 강화·인프라 확충·기업 교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AI 전환 및 산업경쟁력 강화 협력
 - [고속철 추가 도입] 2024년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에 이어 추가 8편성 도입을 위한 EDCF 타당성조사 착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협력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기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현지 제조 기반 확충과 인프라 현대화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수자원·철도·교통 분야의 협력을 확대·구체화함.²⁰⁾
 - [화학산업·플랜트 및 가스시설 유지 보수] 정책·기술·인력을 포괄하는 화학·플랜트 협력체계 구축 및 가스시설 유지 보수 협력
 - [광케이블·강관 생산] 기존에 논의되어온 현지 광케이블 제조시설 설립·공급 확대 추진 및 강관 생산 MOU 체결을 통한 현지 제조 협력 확대
 - [수자원 관리 협력] AI 기반 홍수 예보·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물 관리 사업 발굴, 대우건설-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 간 카라쿰 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한 MOU 체결²¹⁾
 - [철도·교통 인프라 협력] 철도교통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기업 진출 기반 마련, S&T System-오자르 아시아(Ojar Aziya) 간 도로 인프라·보안시스템·교통 인프라 관리 분야 협력 추진²²⁾
- **[키르기스스탄]** 할랄 인증 상호인정을 통해 교역·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농축산업과 전력·인프라 현대화 관련 협력을 구체화함.²³⁾
 - [할랄 인증 상호인정 및 협력] 양국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의 상호인정 및 공동교육·산업 자문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현지 인증 부담 완화와 시장 진출 여건 개선
 - [축산기술 협력] 농촌진흥청은 기존에 추진해온 축산기술 협력을 인공수정·사양 기술 보급, 축산 기반 확충 등으로 확대하고,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원²⁴⁾
 - [스마트그리드 협력] 원격검침 인프라, 전력망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 분야의 기술·정보 협력 기반 마련
 - [PPP 협력] 키르기스스탄 내 PPP 사업정보 교환 및 관심사업 협의를 통한 한국기업의 현지 PPP 사업 참여 기반 마련
- **[타지키스탄]** 철도·교통 부문 4건의 MOU를 통해 관련 인프라 및 연결성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함.²⁵⁾
 - [철도·교통 분야 협력] 철도 정책·기술, 도시철도, 철도·인프라 현대화 및 관리 협력을 확대하고, 철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 9. 16.), 「(참고자료)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18) 「한-우즈베크,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2026. 9.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 9. 16.), 「(참고자료)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20)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5.),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21)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2026. 9. 16.), 『연합뉴스』.

22) 「한-투르크 정상회담...李 "서로 강점 극대화해 새로운 기회 열자"」(2026. 9. 15.), 『머니투데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between "Ojar Asia" and Korean company "S&T System Inc."(2026. 9. 15.), TMT Consulting Group.

23)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2026. 9.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6. 9. 17.), 「농촌진흥청, 키르기스스탄과 축산 기술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25) 「한-타지키스탄, 철도·AI·교역 등 17건 협력문건 체결...협력 기반 확대」(2026. 9.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력양성센터 건설 등 인적·기술 역량 강화 협력 추진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정보·기술 협력과 원격검침 인프라, 전력망 디지털화 등 협력 기반 마련

■ [특화 협력] 한-카자흐, 한-우즈베크, 한-투르크멘은 기존의 양자 협력관계와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특화 협력 분야를 발굴·확대하여 양자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함.

- [카자흐스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MOU를 체결함.

- [국토교통부-AI·디지털개발부, 교통부] 도심항공교통(UAM)·무인항공의 안전한 도입과 저고도 공역의 디지털 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교통관리(UTM) 기술 이전, 시스템 개발·현지 도입, 관련 기술 현지화²⁶⁾

- [우즈베키스탄] 바이오·보건 분야에서 규제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 투자개발 사업을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우즈텍트레이드(Uztechtrade) 간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함.²⁷⁾

- [재정경제부-투자산업통상부] 국가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오센터’ 설립을 위한 EDCF 타당성조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안전센터] 의료제품 분야 규제기관 간 정보 교환·규제 조화 및 역량 강화 협력
- [KIND-의료·제약산업개발청]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의 이행 및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한 투자·사업화 방안 검토²⁸⁾

- [투르크메니스탄] 장기간 논의가 지연되어온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공동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형태의 조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²⁹⁾

* 괄호 안은 한국·현지 기관 또는 기업 순서임.

26) Aviation Administration of Kazakhstan(2026. 9. 16.), “Kazakhstan and South Korea Sign Agreements on Urban Air Mobility (UAM) and Unmanned Aviation.”

27) 「한-우즈베크,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2026. 9.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8) KIND 보도자료(2026. 9. 17.), 「KIND, 정상외교 계기로 중앙아시아 투자개발사업 협력 본격화」.

29)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23년 6,100톤급 화물선 2척을 공동건조하는 계획을 체결했으며, 2026년 5월 첫째 화물선 ‘Gadamly’가 완성되어 인도를 완료함.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5.),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투르크메니스탄 주대한민국 대사관 보도자료(2026. 5. 9.), “Turkmenistan launches domestically built cargo ship - a joint achiev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표 2. 한-중앙아시아 5개국 양자 정상회담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AI·과학기술·신도시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장 - 원유 및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원전 밸류체인 전 주기 협력과 한국기업 진출 기반 강화 - 데이터·통계, 미래항공 모빌리티, 과학기술 인재 양성,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협력 등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 카자흐스탄 내 '코리아데스크' 설치 및 고용허가제(EPS) 송출국 지정,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독립운동 사적지·기록물 보존협력 심화
우즈베키스탄	- 기존의 교통·인프라 중심 협력을 핵심광물, AI·디지털, 바이오·보건, 환경 등으로 확대 - 고속철·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 확대 및 한국기업 참여 지원, 희소금속 탐사·개발·가공 전 주기 공급망 협력과 제조 AI 전환, 방산 협력 추진 - 의료보건 클러스터 및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협력 확대 - 환경·기후 협력사업 확대, 관광·교육 등 인적 교류 강화,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 마무리 - 코리아데스크 설치 및 '한-우즈베크 경제인협의회' 출범을 통한 기업 지원 강화
투르크메니스탄	- 기존 에너지·플랜트 중심 협력을 철도·물류, 조선, 신도시, 수자원, 산림, AI·과학기술 등으로 확대 - 현지에서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방식의 조선 협력 확대, 철도·신도시 분야 협력 사업화 - ICT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현대화·사막화·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 - 투자보장협정 체결
키르기스스탄	- 무역·투자, 핵심광물, 도시·인프라, 식량안보, 공공행정, 재난·치안, AI, 환경,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 핵심광물 유망 협력사업 공동 발굴, 도시계획·PPP·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 비슈케크 KOTRA 무역관 개설, 코리아데스크 설치, 할랄 인증 상호인정 - ODA 지원, 치안 및 재난 협력,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및 인적교류 확대 노력 지속
타지키스탄	-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기존 개발협력 중심 관계를 교역·투자, 철도·교통, 핵심광물, AI·디지털, 기후·환경 협력 등으로 확대 - 철도 협력 심화, 안티모니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 '코리아데스크' 설치, 세관·지식재산·공무원 인사 및 역량 개발·반부패·자금 세탁 방지 등 분야에서 제도 협력 추진

자료: 청와대 보도자료(2026. 9. 14~16.), 한국-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개별 브리핑을 종합하여 저자 정리.

3. 시사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정상급 협력을 제도화하고 경제·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양아 협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제도화하여 중앙아와의 협력을 한층 심화했고, 상황과 의제에 따라 정상급 양자·다자협력을 병행하여 지역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

- 1992년 수교 이후 한-중앙아 5개국의 양자 정상회담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2년 주기의 정기적인 정상급 접촉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별 정상 교류의 지속적 협력 기반이 확보됨.
- 향후에는 의제와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아 일부 국가와의 소다자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마련함.

-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산업장관 협의체와 기업 진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대러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유지·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에너지·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중앙아의 현지 가공·제조 및 산업 고도화를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협력구조를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한·중앙아 미래 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기존 자원·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기술·혁신과 녹색전환 분야로 확대하고,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함.

■ 주요국의 중앙아 다자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경제안보·연결성·기후·인적 교류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나, 중앙아의 자원·성장 잠재력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한 현지 산업 고도화와 가치사슬 구축 및 AI·과학기술 분야의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임.

■ 정상외교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후속 노력이 요구됨.

- 정상회의-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차관급 고위관리회의(SOM)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년 주기 정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논의된 무역·투자, 에너지·핵심광물, 교통·물류, AI·과학기술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추진 여건과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인프라·에너지·핵심광물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므로 정책금융과 국제금융기구를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 마련이 중요함.
 -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ADB가 중앙아의 핵심광물·AI·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이를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KIEP**